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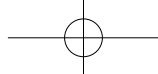
인간주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인문교육
— [철학적 인간학] 수업에서 활용된 팀티칭 사례연구 —

김성희, 박병준, 홍경자¹⁾

〈목차〉

- I. 머리말
- II. 인간주의 교육관이란?
- III. 인간 중심 교육관에 따른 교육의 방향
- IV. 맺음말

1) 김성희·박병준·홍경자(서강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고는 2011년도 서강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핵교양강좌인 [철학적 인간학] 수업에 대한 팀티칭 교수법과 관련한 분석이다.

철학적 인간학 강좌는 ‘인간과 신앙’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2011년 이전까지는 기존 수업에서 평이하게 볼 수 있는 교수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데 반해, 2011년 1학기를 기점으로 교양과목 및 교양학부 교과목에 교수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팀티칭 교수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과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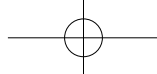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철학적 인간학 수업이 추구하는 팀티칭 교수법의 근저에는 철학적 인간학이 추구하는 ‘인간 중심주의’ 에 기반을 둔 인간주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팀티칭 교수법’ 으로 인문 교양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동기 부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어〉 철학적 인간학, 인간 중심주의, 인간주의 교육관, 팀티칭, 교수법

I. 머리말

현대의 사상가 부버(M.Buber)는 일찍이 인간의 정신사와 관련하여 인간이 자신이 거할 집이 있는 시대와 그렇지 못한 시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거할 집이 없는 시대에는 항상 인간학적 사상이 깊어졌다고 간파한 바 있다.²⁾ 오늘날 인간학적 사상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2) 마틴 부버, 남정길 옮김(1991), 『사람과 사람사이(Between Man and Man)』, 전망사, p.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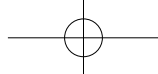


이 단순해 보이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무수한 철학자들이 그토록 노력을 경주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은 아버지의 예언자적 식견처럼 현대의 시대적 상황이 잘 응변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문학과 자연 과학이 융성하게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학문의 놀라운 발전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자연 과학적 이해의 폭도 분명 깊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이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곧잘 오늘날을 인간 상실의 시대에 비유하곤 한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는 과학 기술과 복잡하고 다원화하는 사회 문명 안에서 오히려 인간은 자주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정체성의 상실을 맞본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상실은 대학에서 인문 교양 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은 아버지의 말대로 사상적으로 거할 집을 잃어버린 시대 혹은 대학에서의 인문 교양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표현한다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인간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은 오늘날 인간의 인간다움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인간다움의 상실은 특별히 인간을 비윤리적인 모습을 부추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된 인간, 본래의 자기를 상실한 참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를 다시금 질문해 봄으로써 인간의 자기 규명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참된 인간의 본질’ 에 관한 질문을 묻는 인문 교양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더 간구되어야 할 현



시대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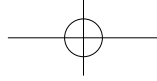
사람들은 흔히 철학 교육은 상아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에만 국한된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은 편향된 인식은 인문교양 수업인 ‘철학적 인간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일부 퍼져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을 ‘직접’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철학적 인간학’ 수업이 캠퍼스를 떠나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수업임을 ‘인간주의’ 교수법을 통해 안내하고, 그와 같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간주의 교육/교수법을 통해서 이론과 실제-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과 같은 계몽 프로젝트의 새로운 인간이 우리의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 해석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수밖에 없다. 본 논고는 ‘철학적 인간학’ 수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대적 물음에 대한 질문을 인간주의 교육관을 연구하는데 그 필요성과 목적을 둔다.

모든 물음들 중 가장 절박한 물음이며 인류이래로 가장 오래된 물음이면서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함으로써, 우리들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를 통한 인간주의 교육법은 우리들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 실존적 좌절감, 가치관의 혼란, 성(性)도덕관과 관련된 문제, 인생관의 확립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철학이 더 이상 삶과 유리(遊離)된 형이상학적 질문만을 공허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을 천상에서 지상으로 끌고 내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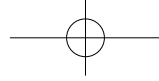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정당화하는 철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즉 우리들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철학으로서의 ‘철학실천’을 목표로 둔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한 인간주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교수법은 철학을 통해 지금과는 ‘다르게 사고하는 법을 습득’하여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철학적 사고로 가는 길을 준비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철학적 전승들을 실마리로 삼아 자신에게 부과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 첫 장에서는 부버의 「나-너」의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간교육론을 소개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칸트의 실천적 교육을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철학적 인간학 수업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대학에서의 인문교양 수업이 외적으로는 팀 티칭 수업의 진행방식과 내적으로 인간 중심 교육 중심의 교육관과 실천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인간주의 교육관이란?

인간주의란, 휴머니즘(Humanism)의 번역어이다. 휴머니즘은 그것이 논하여지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인문주의, 인도주의, 인본주의, 인류주의, 인가주의 등으로 해석이 달리 되어 왔다. 그런데 20세기 휴머니즘은 인간의 생명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완성 가능성, 인간의 자



유와 책임을 무엇보다 존중한다³⁾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인간주의라고들 번역한다.

조리(R.P.Joly)는 인생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은 곧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무엇보다도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인간주의적 교육론을 실천적으로 실천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한 학자는 소크라테스이며, 그의 교육법으로 대표되는 산파술 혹은 대화적 방법은 현대의 교육사상과 교육현장에서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인간주의 교육관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부여는 '나-너(I-Thou)'의 관계와 '나-그것(I-It)'과의 관계 사이의 구별을 중심으로하는 대화와 교섭의 교육관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기반으로, 인간주의 교육이 교육 목표로 삼는 이상적인 인간을 양육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의 토대가 되는 칸트의 실천교육론에로까지 그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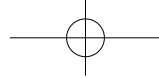
1.부버의 「나-너」의 교육론

부버는 인간세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질서를 「나-너」의 관계와 「나-그것」의 관계로 설정하고, 파악했다. 즉 「나-너」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참대화가 이루어지는 인격공동체와 「나-그것」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독백만이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회로 구분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더 「나-그것」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현대사회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나-너」의 관계회복을 통

3)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 편(1993), 인간주의 교육사상, 내일을 여는 책, p.21.

4) R.P.Joly, *The Personality in a Philosophy of Education*(New York : Humanity Press Inc., 1960).



해서 전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이 부버 사상의 요점이다. 이처럼 부버는 ‘관계’의 개념으로서 인간의 위치 및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참다운 인간존재는 고립된 실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형성’을 통해서 나타나며, 사회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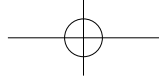
이와 같은 부버의 인간주의 교육관은 팀티칭 교수법의 토론 및 토의 학습 시간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정조 발표⁵⁾ 혹은 개인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수업을 「나-그것」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수강생들」의 인격공동체 혹은 수강생 중심 나아가서 인간주의 교육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2. 칸트의 실천적 교육론

칸트는 그의 『교육학 강의』 서문에서 ‘인간은 교육 받아야 할 또는 교육되어야 할 유일한 피조물’⁶⁾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칸트의 고백은 그가 익히 『순수이성비판』을 통해서 철학적 인간학의 질문의 중요성을 밝힌 것과 더불어 철학적 인간학의 기본 테제가 되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중요성에 대한 또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5) 주 2회 수업 중, 주 1회차는 교수/강사자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주 2회차 수업은 수강생들의 참여로 지정조의 발표 있는 후에, 모둠별로 개별조에서 토론 및 토의 그 이후에 개인/개별 질문을 지정조에게 손을 들고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토론 및 토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버가 명시하는 근원어의 「나-그것」으로 수업 혹은 동료 수강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너」의 관계로 그 관계의 지평이 인간주의 교육관에 기반을 두고 넓혀져야, 원활한 수업의 진행이 가능하다.

6) 칸트 지음, 조관선 옮김(2001), 칸트의 교육학 강의, 철학과 현실사,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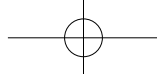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칸트의 문제 의식은 교육의 범주를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으로 나누게 된다. 즉 소극적 방식은 양육과 훈육이며, 적극적 인 방식은 지식 교육과 도덕 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이라는 말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먹이고 돌보고 키우는 양육, 어린아이의 기율과 규율을 잡는 훈육, 어린아이에게 지식내용과 교과내용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지식 교육 그리고 온전한 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삼는 도덕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에 관한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인간은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 훈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그리고 지식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이해 될 수 있다.⁷⁾

이와 같은 칸트의 교육은 인간을 숙명적으로 교육적 동물(educational animal)로 선언하는 것이며, 중국에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참다운 인간’ 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인간과 도덕에 대한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학과 도덕법칙의 문제에 기반한 인간주의 교육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팀티칭의 실천적 방향 혹은 인문교육의 실천한 방향 모색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있는 논제들이 될 것이다.

둘째, 칸트는 교육자와 학습자를 ‘상호성’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다. 즉 칸트의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된다’ 는 선언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이 점점 발달해간다는 점을 강조

7) 위의 책, 같은 쪽(p.15.)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칸트의 실천적 교육관이 현대의 교육현장에서도 실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간주의 교육관에 기반에 인문교육의 방향의 모색이 절실함을 대변해 주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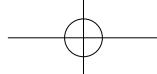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의 논의는 이와 같은 인간주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실제 대학에서의 인문 교양 현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관을 어떻게 실천 혹은 적용할 수 있는지 철학적 인간학 수업의 팀티칭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III. 인간 중심 교육관에 따른 교육의 방향

1. 철학적 인간학 수업에서 활용된 팀티칭 사례연구

철학적 인간학 수업은 서강대학교 중핵선택 필수 교과목 영역에 속하는 강좌로, 강좌가 개설된 이래 교수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올 2011년 01학기부터는 팀티칭 교수법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 개발을 바탕으로 수업 운영 및 교수법이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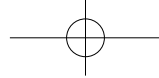
철학적 인간학 팀티칭 교수법이 추구하는 인간주의 교육관은 위에서 언급한 부버의 「나-너」의 교육관과 칸트의 실천적 교육관을 기초로 해서 강의계획서의 작성했으며, 인간주의 교육관의 다른 의미, 즉 수강생 중심의 교수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시도였음을 밝힌다.



2. 팀티칭에 의한 지도법 시도

팀티칭이란 2명 이상의 교수가 팀을 이루어 교수 방법 및 조직을 협의하여 교수 각자의 장점을 살려 좀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교수법이다. 현재 팀티칭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일반 교과 교육은 물론이고, 유아 교육에서부터 외국어 교육, 특수 교육, 그리고 대학에서의 웹 기반 가상 수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각각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형은 원어인 교사와 함께 하는 외국어 교육과 특수 교육에서 높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팀티칭 기법을 다른 교과목 영역도 아닌, 인문교양강좌에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의 우려론과 무관론 사이에서 철학적 인간학 강좌가 선구자로 나서게 되었다. 철학적 인간학 강좌 이전에 인문교양 강좌 혹은 인문학과 수업에서 팀티칭 교수법을 활용하였으나, 그 수업에서 사용한 팀티칭 방법은 현재 우리 교과목이 개발 중인 팀티칭 교수법과는 실천적 기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기존의 인문 교과목 혹은 인문 교양 강좌에서 사용한 기법은 6개의 분반이 있다고 했을 때, 각 분반의 담당 교수 및 강사가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6명의 선생님이 각자 주차수를 선택해서, 맡은 주차에만 그 분반에서 강의를 하는 식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수강생들 사이에서 “정신이 없다, 어수선하다, 담당 교수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등”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단점이 있었다는 선례를 참고하여, 본 철학적 인간학 팀티칭 교수법에서는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3월 개강시까지 철학적 인간학 강의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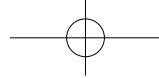
적어도 주1회 회의를 하면서, 교수법 개발에 열의를 보였다. 다음은 이와 같은 노고를 바탕으로 한 2011-01학기 강의계획서와 1학기 팀티칭의 단점을 보완한 ‘확장된(extended)’ 강의계획안을 바탕으로, 인문교육에서의 팀티칭 교수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3. 팀티칭을 위한 강의계획안의 구성 : 2011-01학기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에 첨부된 <표1>의 1학기 강의계획서는 본 교과목이 어떤 식의 교수법이기에, 기존의 강좌에서 수강하던 수업과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 수 없는, 즉 기존의 교수 중심의 교수법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형태의 강의계획서로 보인다. 하지만, 첫 학기에 팀티칭 교수법 시행을 위해서 주 1회씩 담당 교수/강사가 모여서 매 주차 강의 일정/강의 주제/토론 주제를 정하는 회의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통 강의록을 만들었으며, 그와 같은 공통 강의안으로 어떻게 강의를 꾸려나갈지에 대한 모의/시범 강의를 시연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좀 더 ‘준비된’ 교양강좌 인문 교육의 장이 열릴 예정임을 밝힐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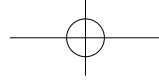
<표1> 2011-01학기 강의계획서

2011-01 학기 강의계획서			
과목명	철학적 인간학	학점	
과목번호		구분(학점)	이론/실험/설계
수강대상		수업시간/강의실	
담당교수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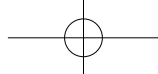
교양교육연구(제5권 제2호)

상담시간		선 수 과 목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1. 교과목표							
2. 수업방식							
강의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개별 팀별발표	기타		
○	○			○	통합강의 병행		
외국어 English(사용 외국어)100% 활용							
3. 평가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참여도	토론	퀴즈	발표	기타
30%	30%	15%	5%	20%			
※ 평가유의사항							
① 토론은 중간고사 전까지의 전반기 10% + 중간고사 이후의 후반기 10%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토론조] 구성은,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서 조를 편성하도록 한다							
4. 교재							
주교재							
부교재							
5. 장애학생 지원사항							
※비고							
6. 수업내용							
주	수업내용			수업방법	비고		
	세부내용						
1주	강의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분반강의			
	각 분반별로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2주	인간과 동물			분반강의 및 토론			
	[토론주제] 인간의 기원 : 창조 혹은 진화?						
3주	영혼과 육체			분반강의 및 토론			
	[토론주제] '죽음' 은 끝인가, 시작인가?(인간의 영원성)						



4주	이성과 감성	분반강의 및 토론	
	[토론주제] 행복이란 무엇인가(의미와 가치): '나' 에게 행복은 무엇인가?		
5주	자아: '나' 는 누구인가?	분반강의 및 토론	자아/의식/반성
	[토론주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혼/자녀/성 등의 문제)		
6주	자유	분반강의 및 토론	자유·의지와 결정론
	[토론주제] 교육(학습과 본능), 자유와 방종?		
7주	양심과 인격: 선과 악의 문제	분반강의 및 토론	인간존엄성의 문제
	[토론주제] 나는 어떤 고통과 '죄스러움' 을 느끼는가?		
8주	중간고사		
9주	인간과 사회	분반강의 및 토론	정치/경제/노동가치
	[토론주제] 소통과 공감 - 바람직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10주	창조적인 삶: 인간과 예술	분반강의 및 토론	
	[토론주제] 나는 '휴식(여가와 놀이)' 를 즐기고 있는가?		
11주	인간과 생명	분반강의 및 토론	
	[토론주제] 삶과 죽음		
12주	인간과 과학	분반강의 및 토론	
	[토론주제] 미래인간(포스트 휴먼)		
13주	인간과 종교	분반강의 및 토론	신의 문제
	[토론주제] 종교적 갈등과 관용의 문제 - 절대적 진리/신념/믿음의 문제는 '나' 에게 있는가?		
14주	종합토론: 사랑	통합강의	
15주	기말고사		
16주			
7. 유의사항			

하지만 이와 같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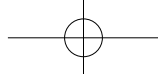


팀티칭 교수법은 여전히 어색한 강의 진행 방식으로 비추어졌고, 무엇보다도 많은 수강생 한 팀당 70명 정원으로 인해, 활발한 토론 및 토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더불어서 주 2회, 1회 수업당 75분씩 진행되는 수업 구조 내에서 주중 첫 수업—예를 들어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에 철학적 인간학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화요일 수업은 담당 분반 교수자의 강의, 목요일에는 지정조 발표후 토론으로 이어지는 수업 모형의 팀티칭으로 구성하였다.

겨울방학부터 수강생 중심의 팀티칭 교수법 개발에 매진하였지만, 한 학기를 마친 후 수강생들의 소감은 주2회 수업 중, 주1회 강의 75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감당하기에 버거운 양의 수업 진행으로 ‘수박 겉핥기 식’의 강의인 듯 한 인상과 무거운 토론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에 토론/토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건의 사항이 속출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문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간주의 교육을 현장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절감해야 했고, 이와 같은 수강생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팀티칭 교수법에 속한 교수 및 강사들의 회의는 학기 중에도 적어도 한 달에 2회 이상 이루어졌지만, 모두에게 낯선 교수법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매 시간 겪어야 했다.

서강대학교의 수업에 관한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한 학기에 두 번—즉 중간고사 이후에 한 번과 기말고사 이후에 한 번으로—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강생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2학기 팀티칭 교수법에 대한 회의는 계속 되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수강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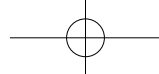
아들여서, 수강생들에게 팀티칭 인문 교양강좌임을 상세히 밝힌 형식의 ‘확장된(extended)’ 강의계획안의 일부를 통해 2학기 팀티칭 교수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확장된(extended) 강의계획안의 구성

앞서 <표1>과 그에 대한 위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과 아래의 <표2>의 확장된 형식의 강의계획안은 철학적 인간학—인문교양 강좌가 인간주의 교육관에 기반한 팀티칭 교수법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학기 강의계획서의 경우는, 강의계획서만 놓고 봤을 때 팀티칭 교과목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매우 소극적인 의미의 인간주의적 혹은 인간 중심 교육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아래의 2학기 강의계획서의 경우는 수강생들에게 본 교과목이 추구하는 교수법과 교육관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형식의 강의계획서로 탈바꿈한 형태이다.

1학기에 팀티칭에 대한 수강생들의 수요도 조사를 바탕으로, 2학기 수업을 위해 작성된 ‘확장된’ 강의계획안은 무엇보다도 수업이 추구하는 교과목 개요/ 교과목표/ 수업 운영 방식/ 교재 및 참고문헌/ 학습 평가 및 평가 활동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면, 무엇보다도 수강생들이 수업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주차별 강의 계획과 진행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한 수강 날짜와 요일/ 해당 차수의 학습 목표/ 수업 중 멀티 기재를 통해서 안내될 강의노트의 PPT의 주요 학습 내용/ 교수방법 및 매체/ 수강생이 준비할 사항/ 참고자료가 상세히 기록된 말 그대로의 수강생 중심의 인간주의 교육관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중간고사 이후의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강의평가의 각 항목에 대한 반응이 1학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철학적 인간학 팀티칭 교과목이 좀 더 질 좋은 인간주의 교육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방식의 주2회 중 강의/토론 및 토의로 진행되는 75분 수업에 대한 재고와 수강인원에 대한 제한 그리고 토론 및 토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수강생들이 그에 해당하는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레포트로 매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수강생들의 레포트를 매 주 피드백(feedback) 해 주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진 상태이다.

〈표2〉 2011-02학기 강의계획서

철학적 인간학 팀티칭(Extended Syllabus)

과목명	철학적 인간학 (팀티칭)	과목번호	HFS2001
구분(학점)	이론 (3학점)	수강대상	2-4학년
수업시간	화/목(4:30~5:45), 수/금(1:30~2:45)	강의실	각 분반 강의실

I. 교과목 개요(Course Description)

본 교과목은 교양중핵/필수 선택 과목 중 하나로써,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과목이다. 모든 물음들 중 가장 절박한 물음이며 인류이래로 가장 오래된 물음이면서도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물음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함으로써 우리들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철학을 통해 지금과는 '다르게 사고하는 법을 습득' 하여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철학적 사고로 가는 길을 준비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철학적 전승들을 실마리로 삼아 자신에게 부과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데 있다.

선수학습내용:(수강 신청 할 때, 수강생들에게 알리는 당부의 글)
 본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특별한 선수교과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교과목의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토론과 토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교과목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길 당부한다.

II. 교과목표(Course Purpose)

[철학적 인간학] 수업을 통해,
 1.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
 2. 인간과 삶의 다양한 현상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3. 나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고유의 관점을 얻는다.
 4. 철학적 사유와 토론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5. 토론과 토의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석능력을 갖는다.
 6.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자기 표현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갖는다.

III. 수업운영방식(Course Format)

본 교과목의 운영방식은 개설된 6개의 분반을 대상으로, 강의 내용이 팀티칭(Team Teaching)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이다.
 [철학적 인간학] 수업의 팀티칭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16주차로 구성된 수업내용/수업방식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춘 공통된 강의안으로 구성되어진다. 한 번은 이론 강의의 한 번은 토론 수업으로 운영된다.
 ① 강의와 토론/토의 병행수업이다.
 ② 1강 오리엔테이션 수업, 2~4강 이론 강의, 5강 토론/토의에 대한 특강, 6강 이후 강의는 이론 강의 및 토론/토의가 번갈아 병행된다.
 ③ 토론/토의 수업(75분) 방식: 20분 [주제와 관련한 지정조 발표] + 30분 [조별 토론/토의(보고서 작성 제출)] + 5-10분 [조별 토론/토의 약식 발표(1-2팀)] + 15-20분 [전체 토론/토의]

IV. 교재 및 참고문헌(Materials and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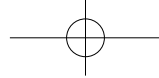
강의와 관련된 지정된 교재는 없고, 필요한 자료는 각 분반별로 서강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을 통해서 제공된다.

V. 학습 및 평가활동(Course Requir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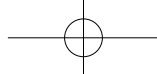
<p>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30% + 출석 15% + 참여도 5% + 토론/토의 20% = 100%로 한다.</p> <p>* 중간고사/기말고사의 30%(30점) 경우는 간단히 서술하는 문제 2문제 + 논술형으로 서술하는 문제 1문제로 한다.</p> <p>* 출석(15%)의 경우는 각 분반 선생님이 따라, 지각/결석에 따른 점수에 차등을 미리 안내한다.</p> <p>* 수업참여도(5%)의 경우는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도를 분반 선생님이 평가한다.</p> <p>* 토론/토의(20%)의 경우는 모임과 발표와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평가한다.</p>
--

VI. 주차별 강의계획(Course Schedule)

1 주 차	1	학습목표	[철학적 인간학] 수업 전반에 대해 소개
		주요학습내용	[철학적 인간학] 강의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교수방법 및 매체	강의
		학생준비사항	강의계획서
		참고자료	강의계획서
	2	학습목표	[철학적 인간학]이란 학문의 성격과 고유한 학문적 방법론을 설명할 수 있다.
		주요학습내용	[철학적 인간학]이란 무엇인가? ① 철학적 인간학의 정의 ② 연속성 안에서 철학적 인간학의 철학사적 조명 ③ 철학적 인간학의 패러다임과 방법 ④ 철학적 인간학의 새로운 출발점
		교수방법 및 매체	강의
		학생준비사항	각 분반에 운영되는 강의관련 카페를 업로드 된 강의노트
		참고자료	리하르트 다비트 플레히트, 백종유 역, [나는 누구인가], 21세기북스, 2008



주 차	3	학습목표	인간과 동물의 비교형태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동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들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학습내용	인간과 동물 ① 막스셸러 : 세계 개방성 ② 플레스너 : 탈 중심성 ③ 겔렌 : 결핍존재 ④ 포트르만 : 조기출산
		교수방법 및 매체	강의
	2	학생준비사항	각 분반에 운영되는 강의관련 카페를 업로드 된 강의노트
		참고자료	막스 셸러, 진교훈 역, [우주에서의 인간의 지위], 아카넷, 2001
	4	학습목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하여 이들이 인간의 본질로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주요학습내용	인간의 본질: 영혼과 육체 ① 역사적으로 본 영혼의 의미 ② 몸의 중요성 ③ 영혼과 육체의 상호관계성
		교수방법 및 매체	강의
		학생준비사항	각 분반에 운영되는 강의관련 카페를 업로드 된 강의노트
		참고자료	에머리히 코레트, 안명옥 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 16장 육과 영의 문제], 성 바오로출판사, 1994
3	5	학습목표	앞으로 진행 될 토론/토의 수업의 방법과 기술을 얻는다.
		주요학습내용	토론 및 토의하는 방법
		교수방법 및 매체	팀별 통합강의
		학생준비사항	각 분반에 운영되는 강의관련 카페를 업로드 된 강의노트
		참고자료	



주 6 차	학습목표	이성, 감성(감정)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이 개념들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상보적으로 작용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주요학습내용	인간의 본성: 이성과 감성(감정) ① 이성, 감성(감정)의 개념 이해 ② 이성, 감성(감정)의 인간 본성으로서의 상보적 관계
	교수방법 및 매체	강의
	학생준비사항	각 분반에 운영되는 강의관련 카페를 업로드 된 강의노트
	참고자료	김상봉, [호모 에티쿠스 - 윤리적 인간의 탄생], 한길사, 1999

VII. 수업규정(Course Policy)

-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F 학점을 받게 된다.
- ※ 팀 모임과 발표에 소극적인 참여는 감점의 요인이 된다.(보고서 작성시 조원 평가 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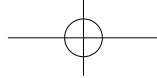
VIII. 참고사항(Special Accommodations)

- ※ 장애우나 외국인, 새터민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은 강의 진행 초반에 미리 분반 선생님께 연락을 취해서 수업과 관련한 도움을 안내 받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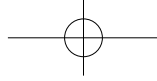
IV. 맺음말

2011학년도 서강대학교 중핵 교양 강좌들 중 하나인 철학적 인간학 수업의 팀티칭 교수법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인간주의 교육관 즉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문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물음을 던져 보았다.

기존의 강의계획서와 달리 2학기 수업을 위해 작성되고, 강의실에



서 매주 실천되고 있는 ‘확장된’ 강의계획서의 기본 강의들은 아버의 「나-너」를 근원어로 하는 「만남」의 교육의 장이 인문교육의 활발한 교양 교육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반으로 서강대학교 철학적 인간학 강의계획서의 모든 강의는 「나-너」를 기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인격적이고 인간학적인 물음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꾸렸으며, 다음으로 철학적 인간학에서 다루는 토론 및 토의 주제는 아버의 입장을 더 확장시킨 칸트의 기본테제 ‘실천교육학’의 입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우리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문교육 더불어서 교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수법 모색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선보(1991), 『만남의 교육』, 양서원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 편(1993), 『인간주의 교육사상』, 내일을 여는 책

마틴 부버, 남정길 옮김(1991), 『사람과 사람사이(Between Man and Man)』, 전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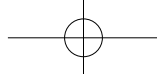
칸트 지음, 조관선 옮김(2001), 『칸트의 교육학 강의』, 철학과 현실사

Cornel M. Hamm 저, 김기수 외 공역(1991), 『교육철학탐구』, 교육과학사

Nigel Blake, 강선보 외 공역(2009), 『현대 교육철학의 다양한 흐름 I』, 학지사

R.P.Joly, *The Personality in a Philosophy of Education*(New York : Humanity Press Inc., 1960)

※ 이 논문은 2011년 10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1년 11월 02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1년 11월 10일까지 심사하고
2011년 11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



◆Resume◆

Humanism Education for Human Education
in Sogang University of Team Teaching Program
through “Philosophical Anthropology”

Kim, Seong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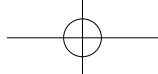
Park, Byoung Jun

Hong, Kyeong Ja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considers Humanism Education in Sogang University of Team Teaching Program through “Philosophical Anthropology”. In the process,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Buber and Kant's educational aspects.

According to BuBer, in educating for students, the concept of ‘teacher and student’ is similar to ‘I-Thou’, not ‘I-It’. That is they are ‘interacting’ in the studying at the class. For the more interaction, teachers are based on ‘Humanism Education’ to take care of student and process the syllabus. And then, for Kant said ‘Human is the only creation that must educate or educated one.’ On his point of view, human being is important for other thing and other than one. Because human being by educating is more moral being other one.



교양교육연구(제5권 제2호)

So education of Kant is ‘Practical Perspectives.’

In Sogang University of Team Teaching Program through “Philosophical Anthropology” try to linking Buber and Kant’ s. And they try to linking humanism education, their syllabus and their ordinary life for students.

Key words : Philosophical Anthropology, Humanism, Humanism Education, Team Teaching

